

IV. 제국주의 침략과 국민국가건설

주제 28)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학 교	
학 번	
이 름	

1. 나폴레옹 몰락 이후 유럽사회의 변화

- 1)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의 정상들이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에 모여 회의(빈회의)
 - ① 오스트리아의 외무장관인 ()가 회의를 주도
 - ② 각국의 정상들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나타난 영역의 변화 및 프랑스혁명의 여파가 유럽 각 지역에 미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회의
- 2) 나폴레옹 전쟁 이후 나타난 영토와 정치체제 변화에 따른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논의
 - ① 정통주의적 입장에 입각하여 유럽의 모든 영토와 정치체제를 ()이전 상태로 환원
 - ②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영국이 유럽의 패권을 나눠가지는 가운데 세력 균형 모색
 - ③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면서 쫓겨난 루이 18세를 다시 즉위시키면서 부르봉 왕조 부활
- 3) 빈회의에 의해 결정된 내용에 따라 유럽에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빈체제)

2. 빈체제에 대한 반발



- 1) 유럽의 각 지역에서 기존 질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빈체제에 대한 반발이 확대
 - 프랑스 혁명의 영향력이 전 유럽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럽 내에서 자유, 평등을 주장하는 움직임 확산
- 2) 당시 나타난 빈체제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빈체제를 주도했던 오스트리아를 필두로 한 강대국들에 의해 진압
 - ① 독일에서는 학생 조합(부르셴샤프트)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
 - ② 이탈리아에서는 카르보나리당이 조직되어 민족 통일과 자유주의 개혁을 이루려는 혁명 운동을 추진
- 3) 자유주의 운동의 확산
 - ① 의미: 근대의식 및 시민의식의 성장을 바탕으로 나타난 국민주권의식의 확대로 각종 규제와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입장

② 대표적인 형태

㉠ ()의 독립운동

- 당시 오스만제국의 식민지였던 ()가 나폴레옹 전쟁 이후 확산된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
- 당시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예술가, 문필가들이 이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해당 국가에서 오스만제국을 상대로 군대를 파병하며 ()의 독립을 지원

㉡ 프랑스의 7월혁명

- 원인: 루이 18세 이후 왕이 된 샤를 10세의 전제정치에 대한 불만
- 당시 프랑스의 자유주의 세력 및 시민계층이 주도하여 자유주의 혁명 전개
- 7월 혁명의 결과
 - ▶ 이 과정에서 프랑스에서는 샤를 10세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인 ()를 추대하며 왕정을 중단하고 ()실시
 - ▶ 7월 혁명의 여파가 전 유럽에 확산
 - ()의 독립
 - ()가 청년 이탈리아당 조직하여 자유주의 운동 전개했으나 실패

㉢ 프랑스의 2월 혁명

- 원인: 7월 혁명 이후 새로 왕이 된 ()가 지나치게 자본가나 부유층 중심의 정책 실시
- 당시 중소시민층과 노동자 계층에서 ()의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
 - ▶ 이전의 프랑스는 납세액에 따라 ()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선거 운영
 - ▶ 산업혁명 이후 중소시민층과 노동자 계층이 증가하자, 이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의 확대를 요구하였음.
- ()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실시
- 결과
 - ▶ 프랑스의 2월 혁명의 여파가 전 유럽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 유럽에 자유주의 운동 확산
 - ▶ 오스트리아에서 3월 혁명 → ()가 추방, 빈체제가 완전히 붕괴
 - ▶ 프로이센에서 3월 혁명
 - ▶ 헝가리, 보헤미아에서 독립운동 전개했으나 실패

※ 7월 혁명과 2월 혁명

	7월 혁명	2월 혁명
원 인	부르봉 왕조 부활, 샤를 10세 전제정치	루이 필리프 즉위 후 중소 시민층과 노동자들의 선거권 제한
중심세력	자유주의 세력, 파리 부유한 시민층	중소 시민층 및 노동자
정치 형태	샤를 10세를 몰아내고 입헌 군주정 실시	루이 필리프를 몰아내고 공화정 실시
결 과	◦ 벨기에의 독립 ◦ 독일의 관세 동맹 결성(1834) ◦ 마치니가 청년 이탈리아 당 결성하여 자유주의 운동 전개했으나 실패 ◦ 폴란드의 독립 운동 ◦ 영국의 제1차 선거법 개정	◦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으로 메테르니히 추방 ◦ 프로이센의 3월 혁명으로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개최 → 실패 ◦ 이탈리아 샤르데냐와 청년 이탈리아 당의 통일 운동이 전개 ◦ 헝가리·보헤미아의 독립 운동 → 실패

㉔ 영국의 선거권 확대 운동 - ()

- 명예혁명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된 영국은 의회 주도 하에 점차 법률을 개정하여 정치적 차별을 개선해가고 있었음.
-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당시 선거권을 얻지 못한 노동자 계층은 ()을 통해 선거권 확대 요구
- 1838년 '21세 이상 모든 남자의 보통 선거' 등의 요구 사항을 담은 () (People's Charter)을 발표하고 120만 명의 청원 서명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음.

※ () (1838)

런던 노동자 협회는 요구 사항을 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를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한다.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1. 21세 이상 모든 남자의 선거권 인정
2. 유권자 보호를 위해 비밀 투표제 실시
3. 하원 의원의 재산 자격 조항 폐지
4. 하원 의원에게 보수 지급
5. 인구 비례에 의한 평등한 선거구의 결정
6. 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여 매년 선거 실시

- 이후 프랑스의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또 다시 ()이 일어났으나 실패
- 하지만 영국 정부에서도 선거권 확대에 대한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여 점차 선거권 확대하여 1918년이 되면 모든 성인 ()의 선거권 인정, 1928년이 되면 모든 성인의 선거권 인정

구분	확대된 유권자
개정 전	귀족, 젠티리
제1차(1832)	
제2차(1867)	
제3차(1884)	
제4차(1918)	
제5차(1928)	

㉔ 러시아의 자유주의 운동

- 19세기 무렵 러시아는 군사적으로는 강력한 세력을 유지했으나 정치체제나 사회체제는 낙후
- 농노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국왕(차르)중심의 정치체제가 유지
- 나폴레옹 전쟁 이후 러시아에서도 자유주의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전제 군주정 폐지, 농노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년 장교들의 봉기가 나타남()
 - ▶ 당시 청년 장교들은 '해방 동맹'을 조직하고 입헌 군주제나 공화제를 주장
 - ▶ 사전 준비가 부족하였고, 민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여 이들의 봉기는 실패
- ()가 실패한 이후 러시아의 황제인 니콜라이 1세는 전제정치를 강화, 남하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을 일으켰으나 패배
- ()에서의 패배 이후 러시아에서는 농노의 봉기가 많아지고, 근대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
-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여 알렉산드르 2세가 자유주의 개혁 추진
 - ▶ 국민개병제 도입, 사법제도 개혁, 지방의회 설치, 각종 검열제도의 완화
 - ▶ ()을 실시하여 농노의 신분 해방 모색: 농노가 지주의 땅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방
 - ▶ 여전히 국왕 중심의 전제정치가 나타났으며 농노들이 가난하여 ()의 실효성이 떨어짐
 - ▶ 이러한 과정에서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하면서 러시아에서는 전제 정치가 강화되었고 자유주의 운동이 탄압을 받게 되었음.

4)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

① 의미

- ㉠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뤄야한다는 입장으로 민족 중심의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운동
- ㉡ 언어, 역사, 문화, 관습과 같은 요소가 민족을 구성하는 객관적 요소와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과 의식과 주관적 요소의 강요를 통해 국민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입장

② 대표적인 민족주의 운동

㉠ 이탈리아의 통일

- 통일 이전의 이탈리아의 상황
 - ▶ 로마제국 붕괴 이후 이탈리아는 단 한번도 통일 국가를 이룩한 적이 없음
 - ▶ 이전부터 교황, 신성로마제국에 의해 제국이 크고 작은 왕국으로 분열, 빈체제 수립 이후에는 ()의 간섭으로 여러 자유주의 운동이 탄압당하고 있었음.
- 이탈리아의 통일과정

▶ 본격적인 통일운동 이전 ()는 청년 운동을 주도하며 자유주의 운동 전개 → 실패 ▶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을 주도한 나라는 이탈리아의 소국이었던 사르데냐 왕국으로 이 국가의 재상인 ()가 통일운동 주도 ▶ 국력을 신장한 사르데냐 왕국은 오스트리아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와 연합 → 이탈리아 북부의 롬바르디아 지역 차지 → 도움을 준 프랑스에 ()와 () 할양 ▶ 이후 ()가 남부의 시칠리아와 나폴리 지역을 점령하고 사르데냐 왕국에 바침 ▶ 이후 베네치아와 교황이 지내고 있는 교황령까지 점령하면서 이탈리아의 완전한 통일 이룩	1870년 이탈리아 경계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사르데냐, 롬바르디아, 베네치아, 제노바, 파르마, 피렌체, 코르시카(프), 교황령, 로마, 나폴리, 양시칠리아 왕국, 팔레르모 1815년 사르데냐 왕국 1860년 프랑스에 할양 1866년과 1870년에 회복 1861년 이탈리아 왕국 미수복 지역(1919년 획득)
--	---

㉡ 독일의 통일

- 통일 이전의 독일의 상황
 - ▶ 신성 로마 제국의 영역으로 여러 소국들이 분열되어 있었으나, 그 중 일찍부터 절대왕정을 이룩한 ()을 중심으로 발전
 - ▶ ()이 국력이 강해지면서 당시 독일지역의 40개의 소국은 ()을 체결하여 일찍부터 경제적 통일을 이룩하였고,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음.
- 프랑스의 2월 혁명 이후 독일에서도 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독일의 통일의 방향에 대해 논의 →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실패
 - ▶ 대독일주의: 프로이센을 포함한 독일의 소국이 같은 게르만족 국가인 ()를 포함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입장
 - ▶ 소독일주의: 프로이센을 포함한 독일의 소국이 같은 게르만족 국가인 ()를 제외하고 통일을 이루자는 입장
- 결국 독일의 통일운동은 프로이센의 주도하에 전개되었으며, 프로이센의 재상인 ()는 ()을 내세우며 무력을 통해서만 독일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 ▶ 의회의 해산, 언론 검열 강화, 자유주의 운동 탄압
 - ▶ 강력한 군대 육성을 위한 군비 확장, 군비 확장을 통한 주변 국가와의 전쟁
- 이 과정에서 독일은 통일에 방해가 되었던 ()와 ()를 차례로 격파하고 ()에서 빌헬름 1세를 황제로 추대하고 독일제국의 수립을 선포

